

캐나다, 향후 3년간 1백20만명 이민자 유치

캐나다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캐나다는 앞으로 3년간 12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금요일 연방 이민부 장관이 말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는 2021년 40만 1000명, 2022년 41만1000명, 2023년 41만1000명을 새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 팔커는 금요일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목표를 달성한다면 향후 3년은 "1911년 이래 최고 기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민 제도는 역사적으로 숙련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하려는 난민들과 개인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여겨져 왔다.

오타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한 공문에서 2021년 이민자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이민자 23만2500명을 비롯해 캐나다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10만3500명의 가족과 5만 9500명의 난민 등을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로 5500명이 수용된다.

캐나다는 COVID-19로 인해 3월에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폐쇄했다. 로이터 통신은 8월까지 12만8,425명의 이민자만을 확보했으며 이는 2020년 목표인 34만1,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캐나다 출산율 역대 최저



캐나다의 낮은 출산율은 지난 금요일에 캐나다가 현재 연간 4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 입학을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한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47명이었다. 인구는 여성당 2.1명 이상의 출산율을 필요로 하지만 캐나다는 1971년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구 자체가 대체하기에는 출산율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세 사이의 노동력에서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와도 일치한다. 노동력 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율은 1950년 22%에서 2019년 84%로 증가했다. 대학 학위 소지 여성의 비율은 1990년 14%에서 2019년 40%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스캐처원

주 지명 이민 534명 새로 초청



사스캐처원은 11월 3일 새로운 초청장을 열었다.

사스캐처원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SinP)은 3일 익스프레스 엔트리 및 주문형 직종 두 가지 하위 범주를 통해 국제 숙련 노동자 부문 534명의 후보자들에게 이민 초청장을 보냈다.

272명의 지원자는 10년 경력을 가지고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CLB)가 8점 이상인 경우에만 68점으로 초청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69점 이상의 EOI 점수가 필요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하위 카테고리 아래 추천에 포함된 직종은 47개였다.

신청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업무경험과 교육, 언어능력, 나이, 도 연고 등을 선보이며 사스캐처원 생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SINP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후보자를 평가하고 국제 숙련 노동자 점수 평가 그리드에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 이어 사스캐처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들에게 주지명을 신청할 수 있는 초청장이 발급된다.

이 추천에 초대되기 위해서는 두 하위 카테고리의 후보자들이 SINP에 관심 표현(EOI) 프로파일일을 제출해야 한다. 두 후보 모두 최소 68점의 컷오프 점수를 요구하지만, 결과 요건들은 조금씩 다르다.

주문형 직업 하위 카테고리에 따라 초청된 262명의 지원자는 모두 교육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이번 추천에는 총 55개 직종이 포함됐다.

어떤 직업들이 초대되었는지 보려면 주정부 웹사이트(www.saskatchewan.ca)를 방문하면 된다.

초청된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 시기에 이민은 인구 증가의 78%를 담당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민은 인구 증가의 79%를 담당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47명이었다. 인구는 여성당 2.1명 이상의 출산율을 필요로 하지만 캐나다는 1971년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구 자체가 대체하기에는 출산율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산모의 연령별 출생 분포도 지난 60년간 달라졌다. 25세 미만 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줄었다. 1959년에는 20-24세 여성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여성 1000명당 23만38명) 2019년에는 이 집단의 출산율이 여성 1000명당 31.8명으로 떨어졌다. 1959년에는 이 연령대 여성의 45%가 처음으로 출산한 반면, 2019년에는 14%가 출산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는 유산을 제외한 37만2038명의 신생아들이 있었다. 남아의 비율은 약 51.3%로 예년과 일치한다.

이민이 없다면 캐나다는 계속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노동력은 적은 노동자로 약화될 것이란 이야기이다. 캐나다의 베이비붐 세대 900만 명이 10년 만에 정년을 맞이할 전망이다.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민자들이 2034년까지 전국 인구 증가의 10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2020년 초, 이민은 이미 캐나다 인구 증가의 82%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30-34세 여성이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아기를 낳을 확률이 높았고, 처음 산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COVID-19 대유행의 시작과 함께 출생률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민 수준이 떨어지면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데 출산율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연방정부의 2021-2023 이민 수준 계획 발표에서 인용되었다.

나이트 엄마들은 쌍둥이가 낳 가능성 더 높다.

초산모의 연령이 높아진다.

지난해 초산 평균 연령은 29.4세로 1959년 초산 평균 연령(23.2세)보다 6살 많았다.

나이가 많은 초산모들은 쌍둥이나 세 쌍둥이를 가질 확률이 두 배 이상 높거나 젊은 여성들보다 더 높았다. 2019년에는 40세 이상 초산모의 4.3%가 다태아인 데 비해 40세 미만 초산모는 1.6% 미만이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살



이런 경향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25세에서 54

캐나다 통계청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한 설명 중 하나는 노년층 여성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낭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배란을 자극하고 여러 개의 난자가 방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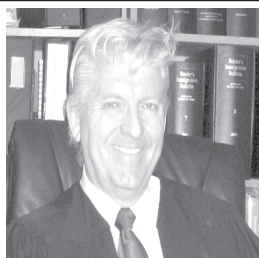
헨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변 호 사

법 무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